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미국 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의 리드 오프 추신수(31)가 내셔널리그 최초의 기록을 세우며 최고의 토타자 반열에 올랐다. 추신수는 2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벌어진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끝내기 안타를 포함, 6타수 3안타에 2도루, 2타점을 수확했다. 2회와 9회 한 차례씩 안타를 치고 나간 추신수는 매번 도루에 성공해 시즌 20도루를 달성했다.

ML 내셔널리그 토타자 최초 '20-20-100-100' 달성

秋 가을 전설 쓰다

신수

◆NL 역사상 첫 토타자 진기록 달성

추신수는 연장 10회말 좌중간을 완전히 가리는 끝내기 안타를 쳐 3-2 승리와 함께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추신수는 21홈런-20도루-109볼넷-105득점을 기록해 NL 역대 토타자로는 최초로 20-20-100-100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매서운 선구안과 타격, 장타력을 모두 갖춰야 이를 수 있는 이 기록은 내셔널리그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 아메리칸리그 토타자 중에서는 리키 핸더슨(1993년)과 그레디 사이즈모어(2007년)만 달성했을 뿐이다.

추신수는 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09~2010년 2년 연속 20홈런-20도루를 이룬 뒤 3년 만에 호타 중추의 상징이라는 20-20클럽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토타자 가운데서 20-20클럽에 들어간 선수는 코크 크리스프(오�클랜드-22홈런-20도루)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다.

지난달 28일 추신수는 2005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9 시즌 만에 100홈런-100도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현역 선수 가운데는 40번째였다. 아시아 선수 가운데서는 '타격 기계' 스즈카 이치로(양키스-110홈런 470도루) 이후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지난 2000년 시애틀과 계약해 미국 땅을 밟은 추신수는 마이너리그를 거쳐 2005년 빅리그에 올랐다. 2006년 클리블랜드로 팀을 옮긴 추신수는 그해 3개의 홈런을 터트리더니 이듬해에는 왼쪽 팔꿈치 수술로 빅리그에서 단 6경기만을 뛰며 홈런없이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풀타임을 소화하기 시작한 2008년에 데뷔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14개)을 쏟아 올리며 거포로서의 능력을 뽐냈다.

2009년(20홈런 21도루)과 2010년(22홈런 22도루)에는 3할 타율에 20홈런-20도루 이상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2011년에는 음주운전 파문과 부상 등으로 8홈런 12도루에 그쳤지만 지난해 16개의 홈런을 쳐내고 21차례 도루에 성공하며 제 기량을 되찾았다. 올 시즌 후 추신수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한다.

◆한국인 가을야구 맞대결 가능성 LA 다저스에 이어 신시내티 레즈까지 포스트시즌 진출이 확정됨에 따라 류현진과 추신수의 한국인 선수 간 첫 가을 야구 맞대결이 성사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앞서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하고 올 시즌 가장 먼저 포스트시즌행 티켓을 확보함에 따라 이들 두 팀의 맞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팀의 3~4선발로 거론되며 포스트시즌 선발 등판이 유

력해진 가운데 류현진은 7~8일 열리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5전4승제) 3~4차전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의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중부지구의 선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동부지구 우승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승률 0.590)가 내셔널리그 승률 선두를 유지하면 와일드카드 팀을 상대하게 되고, 이때 서부지구와 중부지구 우승팀인 다름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시내티가 와일드카드에 만족하지 않고 중부지구 1위로 올라오려면 류현진과 추신수의 맞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다.

신시내티가 이대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통해 올라갈 때도 여전히 한국인 투-타 맞대결의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다저스(승률 0.577)가 애틀랜타를 승률에서 제치면 디비전시리즈에서 두 선수 간 승부가 이뤄진다

연필뉴스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31)가 24일(한국시간) 뉴욕 메츠와 가진 홈경기에서 연장 10회 끝내기 안타 한 방으로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끈 후 두 팔을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추신수는 미 프로야구 내셔널리그(NL) 역대 토타자로는 최초로 '20 홈런-20 도루-100 볼넷-100 득점' 기록을 세웠다.

연필뉴스



부상 탈출 심동섭·한승혁 내년 KIA 마운드 이끈다

부상을 딛 심동섭과 한승혁이 KIA 마운드에 새 바람을 넣는다. 좌완 심동섭과 우완 한승혁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1라운드 KIA 유니폼을 입은 유망주다.

광주이고 출신의 심동섭에게는 포크볼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었고, 덕수고를 졸업한 한승혁에게는 150km가 넘는 강속구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특유의 개성으로 주목을 받았던 두 선수지만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심동섭이 입단 첫해 허리 통증으로 고전을 했고, 한승혁은 입단 전에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군

7월 30일 1군에 복귀한 심동섭은 23일까지 25경기에 나와 2.8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위기의 불펜에 희망이 되고 있다.

심동섭은 "팀 성적이 좋지 않아 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현재의 내 모습에는 만족한다. 부상에서 벗어나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팀의 승리를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 좋다. 지난해에는 140km도 던지지 못했는데 147km 정도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음에 속 드는 피칭은 아니지만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도 봤다. 그만큼 올 겨울이 심동섭에게는 중요하다.

심 지난 7월 1군복귀 후 평균 자책점 2.86 무너진 불펜에 희망투

한 150km넘는 강속구 위력 슬라이더 등 변화구 장착 타자와 승부 자신감

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심동섭이었다. 프로 2년 차였던 2011년 포크볼을 앞세운 배짱 투로 마운드 셋발로 급부상했다. 첫째 5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2011년에는 57경기에 나와 2.77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1패2세이브7홀드를 기록했다. 좌완이 귀한 KIA에게 심동섭의 등장은 단비가 됐다. 하지만 심동섭에게 두 번째 시련이 왔다. 이번에는 팔꿈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2012시즌 중반 수술대에 올랐다.

1년여의 재활의 시간을 견딘 한승혁은 입단 두 번째 해인 지난해 드디어 프로 선수로 이름을 내밀게 됐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내 프로의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 17경기에서 7.43의 평균자책점으로 1패1홀드를 남기는 데 그쳤다. 고등학교 3학년 중반부터 팔꿈치 부상으로 공을 잡지 못했던 만큼 완벽한 한승혁이 되지 못했다.

부상과의 싸움을 해왔던 이들에게 2013 시즌 후반이 다시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스피드와 힘이 붙었다. 자신감도 찾았다.

심동섭은 "밸런스가 좋지 않다. 아직 밸런스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벌써 사구도 4개나 기록했다. 이번 겨울 캠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열심히 해서 안정된 모습을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19일 1군에 재등용된 한승혁도 느낌이 좋다.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있다. 주무기인 강속구의 위력이 살아났다. 한승혁은 후반기 첫 등판이었던 20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152km를 찍었다. 단순한 빠르기를 떠나 공에 힘이 붙으면서 타자와의 승부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한승혁은 "2군에서 공을 많이 던지면서 힘이 붙은 것 같다. 스피드도 좋아졌고, 주변에서도 공에 힘이 붙었다고들 한다. 슬라이더와 스피리터 등 변화구가 빨라지면서 승부하는 데 더 여유가 생겼다"며 "지난해까지는 부상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올 시즌에는 그런 부담도 없다. 자신있는 모습으로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더 큰 투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심동섭>



<한승혁>

'천덕꾸러기' 루시오 광주FC 해결사로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충주 험멜 상대 결승골

'천덕꾸러기' 루시오가 광주의 해결사가 됐다. 광주 FC가 지난 23일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충주 험멜과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충주의 거센 저항과 부상 약재를 넘은 값진 승리, 그 중심에 루시오가 있었다.

올 시즌 충주와의 전적은 1승1무1패. 최근 9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진 충주는 초반부터 강하게 광주를 압박했다. 여기에 '중원의 핵' 김은선이 부상으로 전반 16분 만에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면서 광주에게는 어려운 승부가 됐다.

두 차례 실점 위기도 있었다. 광주는 전반 28분과 전반 31분 충주의 강추후와 임종욱의 헤딩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면서 겨우 가슴을 쓸어내렸다.

위기 뒤 찾아온 기회에서 루시오의 해결사 본능이 발휘됐다.

전반 34분 미드필드 지역에서 충주 수비수를 맞고 흐른 볼을 루시오가 가로챘다. 상대 페널티 박스 정면 앞까지 드리블 돌과를 한 루시오는 왼발로 충주의 골문을 갈랐다. 선취 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온 광주는 이후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값진 승점을 더했다. 광주는 이 승점으로 연패에서 벗어나면서 6위에서 3위로 재도약했다. 위기마다 루시오의 왼발이 빛나고 있다. 루시오는 2010년 경남을 통해 한국 무대에 데뷔한 뒤 2011년 경남을 거쳐 울산에서 편견 없이 빛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첫해 15득점과 10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지만

울산 이적 이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코칭 스태프와의 불화로 이렇다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금씩 입지가 좁아졌다. 잊혀져 가던 루시오는 임대 신분으로 광주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빠르게 팀에 적응한 루시오는 결정적인 한방으로 팀의 전반기 집투의 중심이 됐다. 10득점7도움으로 팀 최다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공격의 물꼬를 트는 곳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해결사 본능에 회색이 더해지면서 제 2의 전성시대를 연 루시오. 지난 7월에는 울산 현대에서 완전 영입이 이뤄지면서 광주의 얼굴이 됐다. 팀의 연패를 끊은 루시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FC를 상대로 연승을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고 상금 10억 걸고 국내-해외파 '샷대결'

내일부터 KGT 신한동해오픈

배상문·류현우·강경남 등 출전

해외와 국내에서 활약하는 남자 골퍼들이 한국 프로골프투어(KGT) 최고 규모 상금을 걸고 자존심 대결에 나선다.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의 잭니클라우스 골프장(파72·7413야드)에서 열리는 제29회 신한동해 오픈에는 총상금 10억원, 우승상금 2억원이 걸려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남자 대회 중 유럽 프로골프투어 대회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총상금 약 31억원)을 제외하고 코리아투어 선수만 출전하는 대회로는 최고 수준이다.

쟁쟁한 '해외파' 출전 선수중에는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각각의 첫 우승을 차지한 배상문(27·캘러웨이)이 선봉에 선다.

지난 5월 바이런데븐 챔피언십에서 우승트로피를 거머쥔 배상문은 세계랭킹 110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올해 PGA 2부 투어에서 된 디펜딩 챔피언 김민휘(21·신한금융그룹)도 출전해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올해 일본 프로골프투어(JGTO)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김형성(33·현대하이스코)과 '일본파'의 선두주자 강경남(27·신한금융그룹), PGA 투어 캘리퍼잉스쿨 수석합격자인 이동환(26·CJ오쇼핑) 등도 만만치않은 우승후보다.

올 시즌 코리아투어 상금과 대상포인

트에서 선두를 달리는 류현우(32)는 이 선수들과의 경쟁을 넘어 '독주 체제'를 꿈꾸고 있다.

2009년 이 대회에서 프로 첫 우승을 맞본 류현우는 총상금 3억281만원으로 1위에 올라 있어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첫 상금왕 등극에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다.

류현우를 약 7000만원 차로 쫓는 상금 2위 강경남(30·우리투자증권)에게는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둘을 필두로 김태훈(28), 홍상상(32·SK텔레콤) 등 올해 1승씩 수확한 선수들은 해외파들을 제치고 '다승' 달성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직전 대회인 동부해체 프로미 오픈에서 우승한 이창우(한국체대)와 군산CC오픈 챔피언 이수민(중앙대) 등 아마추어들이 '풀꽃'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연필뉴스